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3篇上의 字形 풀이 고찰(IV)*

장혜영**

<목 차>

1. 序 論
2. 《說文解字》 자형 풀이의 오류
 - 1) 字形 演變으로 인한 오류
 - 2) 後起字를 本字로 삼은 오류
 - 3) 聲訓法에 의한 오류
 - 4) 互訓法에 의한 오류
3. 結 論

1. 序 論

한자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에는 이미 한자어가 7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인접 국가로서 한글 창제가 이루어진 15세기 이전부터 한자를 빌어 사용하였고, 중국과 빈번한 교류를 맺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래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한

* 본 논문은 갑골문을 통하여 《설문해자》 14편의 자형 풀이를 고찰하는 연구의 일부분입니다. 선행 논문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네번 째(IV)'라고 표기하였습니다.

** 배재대학교 중국학부 강사

共部, 異部, 夨部, 𠂔部(4), 農部, 𠂔部 등 25개 부수와 그 아래 339개의 小篆과 重文 63개가 수록되어 있다⁵⁾.

본 논문에서는 339개 문자중에서 《갑골문자고립》와 비교 대조를 통하여 자형 분석과 본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17개 자를 선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하여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잘못 해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字形 演變으로 인한 오류, 後起字를 本字로 삼은 오류, 聲訓法에 의한 오류, 互訓法에 의한 오류⁶⁾ 등으로 분류 귀납시켜 고찰을 시도하였다.

4) 《설문해자》에는 ‘𠂔’와 유사한 부수자가 두 가지가 있다. 오늘 날 우리가 사용하는 부수 ‘질 구 구’는 7편상에 있는 자형이다. 해서의 자형 차이는 바닥이 붙어 있는 것이 7편상의 ‘𠂔’이고, 떨어져 있는 것이 3편상의 𠂔이다. 오늘 날 부수에서는 ‘𠂔’의 부수 변형자로 𠂔도 사용한다. 《설문》 3편상 𠂔部 : 손을 교차하는 것이다. 왼손과 오른손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𠂔, 叉手也。從𠂔, 𠂔。)

《설문》 7편상 𠂔部 : 방아를 찧는 것이다. 상형문자. (𠂔, 舂也。象形。)

5) (漢)許慎撰,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臺北: 天工書局, 1992): 𠂔部(소전6, 중문2), 舌部(3, 1), 干部(3), 谷部(2, 3), 只部(2), 尙部(3, 3), 旬部(4), 𠂔部(3), 古部(2, 중1), 十部(9), 𠂔部(2), 言部(245, 33), 誦部(4, 1), 音部(6), 𠂔部(3, 1), 𠂔部(4, 2), 𠂔部(3, 1), 𠂔部(升)部(17, 4), 𠂔部(𠂔)部(3, 1), 共部(2, 1), 異部(2, 1), 夨部(4, 3), 𠂔部(2, 1), 農部(2, 3), 𠂔部(3, 1)

6) 다음의 문자학 저서에 보이는 《설문해자》의 한계에 근거하여 분류하였음을 밝힙니다. 《설문해자》의 한계는 시대적 한계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문자 자료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의 착오이다. 둘째는 봉건적 유교사상과 한대 성행한 음양오행설에 의한 문자 해석이다. 문자의 내재적 변화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첫 번째 한계는 字形 演變, 의미의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本字와 後起字와 관계, 聲訓法, 互訓法의 각도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姚孝遂 主編, 《中國文字學史》(吉林教育出版社, 1995), 124-125쪽.

黃德寬·陳秉新 著, 《漢語文字學史》(安徽教育出版社, 1994), 44-45쪽.

孫鈞錫 著, 《中國漢字學史》(北京: 學苑出版社, 1991), 76-82쪽.

劉葉秋 著, 《中國字典史略》(中華書局, 1992), 24-26쪽.

余國慶 著, 《說文學導論》(安徽教育出版社, 1995), 194-209쪽.

1) 字刑 演變으로 인한 오류

(1) 舌

해 서	소 전	갑 골 문	금 문
舌			

《설문》 3편상 舌部 : 입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맛을 구별한다. ‘干’과 ‘口’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고, ‘干’은 또 발음을 나타낸다. ‘舌’이 들어간 글자들은 ‘舌’을 부수로 한다. (在口所以言別味者也。從干口, 干亦聲。凡舌之屬皆從舌。)

【고찰】 갑골문의 자형은 ‘혀가 입에서 나온 모양’을 본 뜬 상형자이다. 《설문》에서의 자의 해석, 역시 ‘혀’로 풀이하고 있으나 자형을 회의문자로 분석한 차이가 있다. 《설문》에 수록된 소전 자형에는 혀와 입 사이에 가로선이 추가됨으로써 허신이 ‘干’과 ‘口’의 회의문자로 임의 해석하게 되는 오류가 생겼다. 게다가 ‘干’은 古寒切 14부이고, ‘舌’은 食列切 15부로, 14부와 15부는 合韻 관계이므로, 亦聲이라고 한 것이다.⁷⁾ 桂馥은 ‘干, 亦聲’은 후인들이 첨가한 것으로 여겼다.⁸⁾

그렇다면, 언제 가로선이 추가되는 자형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위의 도표에서 예로 든 갑골문 자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입에서 혀가 나와 있는 모양, 혀 주위에 침을 나타내는 선이 들어가 있는 모양, 밖으로 나온 혀 중간에 선이 위로 그어져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금문에 이르게 되면, 가로로 변하면서 소전의 자형과 비슷해짐으로써, 허신의 자형 분석에 오류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갑골문에서의 ‘舌(혀 설)’은 본의 외에 가차되어 인명이나 제명으로 사용되었다.

7) (漢)許慎撰 (清)段玉裁注, 앞의 책, 87쪽.
8) (清)桂馥撰, 《說文解字義證》(濟南: 齊魯書社, 1994), 185쪽.

(2) 千




해 서	소 전	갑 골 문
千		

《설문》 3편상 十部 : 열이 백개 있는 것이다.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 ‘十’과 발음을 나타내는 ‘人’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十百也。從十人聲。)

【고찰】 갑골문 자형 ‘千’은 가로획 ‘一’이 의미를 나타내고 ‘人’이 발음을 나타내는 형성문자이다. 《설문》에서는 숫자 ‘十’에서 의미를 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갑골문의 숫자 표기 방법을 보면, ‘十’이 아닌 ‘一’에서 의미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갑골문 자형 ‘千’은 ‘人’자 아래에 가로획 ‘一’을 덧붙여 만든 글자이다. 나아가 아래에 두 획을 그으면 ‘二千(𠄎)’, 세 획을 그으면 ‘三千(𠄏)’, 네 획을 그으면 ‘四千(𠄐)’, ‘五’자를 넣으면 ‘五千(𠄑)’이 되었다.⁹⁾ 6이상의 횡수는 아랫 쪽에 표기하지 않고 위에 표기하였다.¹⁰⁾

‘千’과 ‘人’은 같은 12부 眞聲¹¹⁾에 속하므로 ‘人’에서 발음을 빌어 만든 것이다.

(3) 言

해 서	소 전	갑 골 문	금 문
言			

《설문》 3편상 言部 : 곧바로 말하는 것을 ‘言’이라 하고, 논란하는 것을 ‘語’라 한다. 의미를 나타내는 ‘口’와 발음을 나타내는 ‘辛’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

9) 羅振玉 撰, 《殷虛書契考釋三種 · 增訂殷虛書契考釋》 全二冊(北京: 中華書局, 2006), 388쪽.

10) 趙 誠 編著, 《甲骨文簡明詞典》(北京: 中華書局, 1996), 257쪽. : 六千(𠄎), 八千(𠄏).

11) (칭) 단옥재 주, 앞의 책, 365쪽. : 如鄰切 12部

이다. ‘言’이 들어간 글자들은 모두 ‘言’을 부수로 한다. (直言曰言。論難曰語。從口辛聲。凡言之屬皆從言。)

【고찰】 ‘혀(舌:舌)’에 ‘가로획(一)’을 하나 그어 ‘소리, 말하다’는 뜻을 나타낸 지사문자이다. 복사에서 본의 외에 제명으로 사용되었다.¹²⁾ 屈萬里 선생은 《甲編考釋》에서 ‘言’을 《爾雅·釋樂》에 근거하여 ‘통소’로 풀이하였다.¹³⁾ 근래에 나온 일부 어원 풀이 사전들에서도 ‘입으로 통소 따위의 관악기를 부는 모양’으로 본의를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舌’자 자형과 관련하여 지사문자로 고석하는 것에 동의한다.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은 ‘言’자와 ‘訃’¹⁴⁾자를 같이 나타내었다. 즉, 同源字이다. 于省吾 선생은 《甲骨文字釋林·釋言》에서, “‘言’과 ‘訃’이 본래 같은 글자인데, 나중에 둘로 분화되었으며, 주대 고문자에서도 상호 호용된 예가 보이며, 선진 전적에서도 통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¹⁵⁾

《설문》에서는 변화된 자형에 근거하여 본의를 형성문자로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4) 童

해서	소전	주문	갑골문	금문
童				

《설문》 3편상 후부: 남자중에 죄가 있는 자를 ‘奴’라 하고, ‘奴’를 ‘童’이라 하고, 여자는 ‘妾’이라고 한다. 의미를 나타내는 ‘후’와 소리를 나타내는 ‘重’의 생략자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童은 ‘童’의 주문이다. ‘童’의 가운데 있는 것

12)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北京: 中華書局, 1996), 697쪽. 조 성 편저, 앞의 책, 160쪽, 233쪽, 357쪽.
 13) 于省吾 주편, 위의 책, 696쪽 재인용.
 14) ‘訃’자에 대한 《설문》의 분석은 본고 제2절 후기자를 본자로 본 오류로 분류함.
 15) 于省吾 著, 《甲骨文字釋林》(北京: 中華書局, 1993), 87-88쪽.

과 ‘竊’의 가운데 있는 것은 똑같이 ‘艸’에서 의미를 나타낸다. ‘艸’은 고문 ‘疾’자로 여겨진다.(男有皐曰奴。奴曰童。女曰妾。從辛。重省聲。童，籀文。童中與竊中同從艸¹⁶)。艸以爲古文疾字。)

【고찰】 ‘童(아이 동)’의 갑골문 자형은 사람의 머리 위에 문신 새기는 공구인 ‘부’이 첨가된 모양으로, ‘노예나 죄인의 문신’을 나타낸다.¹⁷⁾ 상형성이 강했던 갑골문의 ‘눈’ 모양이 금문을 거쳐 소전에 이르게되면 자형 분석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허신은 사람과 그 눈의 모양을 잘못 인식하여 ‘童’의 동운자인 ‘重¹⁸⁾’을 소리로 하는 형성문자로서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오늘 날 ‘童’은 ‘노예’의 의미가 아닌 ‘어린 아이’로 의미가 변화되어 사용되는데¹⁹⁾, 본의인 ‘노예’에 해당하는 자는 ‘僮(하인 동)’자를 만들어 분화시켰다.

(5) 僕

해 서	소 전	고 문	갑 골 문
僕			

《설문》 3편상 僕部: 일 해주는 사람이다. 人과 僕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며, 僕는 또 발음을 나타낸다. 僕은 고문으로 人대신 臣과 결합된 회의문자이다.(給事者。從人僕, 僕亦聲。僕, 古文, 從臣。)

【고찰】 ‘僕(종 복)’의 갑골문 자형은 ‘사람의 옆모습’이다. 나진옥 선생은 윗부분의 僕은 머리 장식을, 아랫부분의 僕은 꼬리 장식을 나타내며, 손으로 냄새나는 더러운 물건(인분)을 들어 버리는 모양의 회의자로 풀이하었다.²⁰⁾ 가차되어

16) (清)朱駿聲 著, 《說文通訓定聲》(北京, 中華書局, 1984), 33쪽.: 童, 豐部 第一: 從艸, 未詳其義。
 17) 詹鄞鑫, 《釋辛及與辛有關的幾個字》, 《中國語文》, 1983년 제5기, 372쪽.: 《갑골문자고림》, 2501쪽 재인용.
 18) 童, 徒紅切 9部 重(8편上 重部), 柱用切 9部.
 19) 단옥재 주석에 따르면. 경전에서는 漢代 이후 그 쓰임이 바뀌었다고 한다.
 20) 우성오 주편, 위의 책, 2815-2817쪽.

인명으로 사용되었다.

갑골문이나 허신의 본의 해석은 모두 '더러운 일을 해주는 중'으로 보고 있지만, 소전의 자형이 너무 많이 변하여 자형 분석에 있어 회의점 형성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갑골 자형에서는 단순히 버리는 더러운 물건에 해당하는 모양이 𠄎²¹⁾자로 변하여, 허신은 '사람중에서 번잡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자형 분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6) 𠄎

해 서	소 전	갑 골 문
𠄎	𠄎	𠄎

《설문》 3편상 𠄎부 104 : 활을 잡고 있는 것이다. 두 손인 '卍'와 고기인 '肉'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逵(한길 규)'처럼 읽는다. (持弩拊。從卍肉。讀若逵。)

【고찰】 갑골문의 자형은 '두 손으로 고기를 들고 있는 모양'으로 회의문자이다. 복사에서 가차되어 '제명'으로 사용되었다.²²⁾

허신의 자형 분석과 본의 해설은 일관성이 없다. 본의를 해석할 적에는 '𠄎'부분을 '활'로 보았고, 자형 분석에서는 '고기'로 보는 모순을 드러내었다. 단옥재는 충실한 《설문》의 주석자로서 '讀若逵'에 근거하여 두 손인 '卍'의 의미를 나타내고, '肉'이 소리를 나타내는 형성문자(從卍肉聲)로 허설을 수정 보완하였다.²³⁾ 그

21) 𠄎: 《설문》 3편상 𠄎부: 𠄎은 번잡한 것이다. 떨기로 난 풀인 𠄎과 두 손인 卍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𠄎은 발음을 나타내기도 하다. (𠄎, 讀𠄎也。從𠄎從卍。卍, 亦聲。) 주준성, 위의 책, 376쪽: 𠄎, 《설문통훈정성》 需部 第八: 讀𠄎은 첩운 연면어로서, 번다한 모양이다.(讀𠄎, 疊韻連語, 煩猥之貌。)

𠄎: 《설문》 3편상 𠄎부: 𠄎은 떨기로 난 풀이다. 앞다투어 서로 나는 것을 본 뜬 것이다. (𠄎, 叢生艸也。象𠄎巛相並出也。)

22) 이효정, 위의 책, 791쪽. 우성오 주편, 위의 책, 901-902쪽.

러나 이 역시 잘못된 보완이었다.

오늘 날 상용자로 거의 쓰이지 않는 ‘𠄎’자는 ‘有’의 본자로 보기도 하고²⁴⁾, ‘祭(𠄎)’의 이체자로 보기도 한다²⁵⁾.

2) 後起字를 本字로 삼은 오류²⁶⁾

(1) 干

해 서	소 전	갑 골 문
干		

《설문》 3편상 干부 : 범하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나타내는 ‘一’과 거꾸로 침범해 들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干’이 들어간 모든 자들은 ‘干’을 부수로 한다. (犯也。從一，從反入。凡干之屬皆從干。)

【고찰】 우리가 현재 ‘방패, 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干’의 갑골문 자형은 무기의 일종으로 ‘나뭇가지에 돌맹이를 매단 모양을 본 뜬 상형자이다. 복사에서 지명으로 가차되어 쓰였다. 이 자형 ‘𠄎’은 ‘干’자 외에 ‘單’으로도 고석되어 복사에서 ‘날개’라는 뜻으로 가차되었다.²⁷⁾

23) (칭)단옥재 주, 위의 책, 104쪽: 단옥재는 의미의 충돌이 일어나자, ‘讀若遂’에 근거하여 형성문자로 분석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본인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듯 《소서본》의 견해를 덧붙여 놓았다. : ‘肉’이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구’처럼 읽는다. ‘구’는 고음이 ‘구’와 같다. ‘足’부의 ‘𠄎’과 ‘頁’부의 ‘頤’이 모두 ‘구’처럼 읽는다. 《소서》 본에서는 ‘肉’이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按肉聲，故讀如遂。遂，古音同仇。足部，𠄎，頁部，頤，皆讀如仇。小徐云肉，非聲。)

24) 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引論》(長春: 東北師範大學, 1993), 334쪽.

25)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5), 238쪽.

26) 후기자를 본자로 삼은 오류의 근저에는 자형 변화에서 비롯된 자들이 많다. 자형 변화로 인한 오류뿐만 아니라, 나아가 후기자를 본자로 여긴 오류를 더 좁은 영역으로 보아 두 부류에 속한 자들을 이곳으로 귀속시켰다.


27) 서중서 주편, 앞의 책, 209쪽.

‘干’은 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하는데서 ‘범하다’는 인신의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허신은 후기자를 본자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 十

해 서	소 진	갑 골 문	금 문
十	十		

《설문》 3편상 十부 : 다 갖추어진 숫자이다. ‘一’은 ‘동서’이고, ‘丨’은 ‘남북’이다. 즉, 사방과 중앙이 다 갖추어진 것이다. ‘十’이 들어있는 자들은 모두 ‘十’을 부수로 한다. (數之具也。一爲東西。丨爲南北。則四方中央備矣。凡十之屬皆從十。)

【고찰】 숫자 ‘十’은 갑골문에서 세로획 하나를 그어 의미를 나타낸 지사문자로, 가로획 하나를 그은 ‘一(하나 일)’과 구별된다. 즉, 숫자의 처음 ‘하나’는 가로선 ‘一’로, 십진법 숫자의 마지막 ‘열’은 세로선 으로 표시하였다. 금문에서는 대부분 가운데에 점이 들어간 형태로 쓰이다가 한나라 때 이후, 예편을 거치면서 오늘 날과 같은 ‘十’자 모양으로 바뀌었다.²⁸⁾

허신은 아라비아 숫자 ‘열 십’으로 본의를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具(갖출 구)’자로 풀이함으로써, 인신의인 ‘갖추어지다’로 풀이하였다. 이 후기의는 오늘 날까지 이어서 ‘十分’ 등의 어휘로 사용된다.

28) 나진욱 찬, 위의 책, 386-387쪽. : 갑골문의 ‘十’자 모양은 ‘丨’을 나타내었다. 한대에 들어서 ‘열’을 나타내는 자형이 ‘丨’에서 ‘十’으로 변화되자, 기존의 ‘일곱 칠’을 나타내던 ‘十’자는 가로 선을 좀 길게 함()으로써, ‘열 십’자와 구별을 하였고, 이후 ‘丨’자로 바뀌게 된다.

(3) 𠂔

해 서	전 서	갑 골 문
𠂔		

《설문》 3편상 干부: 순통하지 않은 것이다. 거꾸로 침범하여 구덩이로 들어
가 거스르는 것이다. (不順也。從干下凵, 𠂔之也。)

【고찰】 ‘𠂔’은 오늘날 ‘逆’자의 초문이다.²⁹⁾ 갑골문 자형은 1기에서 이미 세
종류가 나타난다. ‘거꾸로 된 사람의 모양’, ‘발을 나타내는 止(止)가 첨가된 자형,
‘길을 나타내는 辵(辵)과 발을 나타내는 止가 첨가된 자형³⁰⁾ 등이다. 복사에서는 가차
되어 인명, 지명으로 사용되었다.

오늘 날에도 ‘順’의 반의어로 쓰이는 ‘逆(거스를 역)’은 ‘사람이 거꾸로 걸어오
다’는 본의에서 인신되어 나온 것이다. 즉, ‘거슬러 오다’에서 보편적인 의미의 ‘거
스르다’는 뜻이 인신되었다. 또한, ‘逆’은 고서에서 ‘迎(맞이할 영)’의 뜻으로도 사용
되었는데³¹⁾, 이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맞이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受(받을 수)’자가 ‘주다’와 ‘받다’라는 상반된 의미로 동시에 쓰였던 것
과 같은 이치이다.

허신은 후기자를 본자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9) 나진옥 찬, 위의 책, 516쪽. : 𠂔, 爲倒人形。示人自外入之狀。與逆同字同意, 故卜辭亦字亦如此作。

30) 나중에 길과 발이 결합된 자형 辵(辵)으로 정형화되어 예서를 거치면서 ‘辵(천천히 걸을 착, 辵)으로 변한다.

31) 장혜영,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2篇下의 字形 풀이 고찰(III)〉, 《중국문화연구》 제6집 (2005.06) : 逆 : 《설문》 2편하 辵부 : 맞이하는 것이다. 辵과 𠂔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관동 지방에서는 ‘逆’이라고 하고, 관서 지방에서는 ‘迎’이라고 한다. (迎也。從辵𠂔聲。關東曰逆, 關西曰迎。)

(4) 音³²⁾



해 서	소 전	갑 골 문	금 문
音			

《설문》 3편상 音부: 소리이다. 마음에서 일어나 외부에서 절제가 있게 된 것을 ‘音’이라고 한다. 공상각치우는 오음을 나타내는 소리이고, 사죽금석포도혁목은 여덟 가지 악기가 연주하는 소리(음악)이다. ‘言(音)’에 ‘一’이 첨가된 자이다. 모든 ‘音’이 들어간 자들은 ‘音’을 부수로 한다. (聲也。生於心，有節於外，謂之音。宮商角徵羽，聲也。絲竹金石匏土革木，音也。從言含一。凡音之屬皆從音。)

【고찰】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은 ‘言’자와 ‘音’자를 같이 나타내었다. 즉, 同源字로 호용되었다. 따라서 본고 2장 1절 셋째 ‘言’자 자형 분석과 마찬가지로, ‘音’은 당초 ‘혀(舌: 舌)’에 ‘가로획(一)’을 하나 그어 ‘소리, 말하다’는 뜻을 나타낸 지사문자였으며, 복사에서는 본의 외에 제명으로 사용되었다.³³⁾

허신 당시의 두 소전체를 보면, ‘音(言)’과 ‘音(音)’으로 구별이 생겨, 허신은 ‘音’자를 ‘말(言)’에 그 무엇이 들어있는 것(一)으로, 그냥 의미없는 소리와는 다른 ‘음악’으로 풀이하였다. 자형 외변으로 인하여 후기의를 본의로 잘못 풀이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5) 妾

해 서	소 전	갑 골 문
妾		

《설문》 3편상 女부: 죄있는 여자중에 군주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군주를 위

32) 본고 2장 1절 ‘言’자 설명 참고.

33) 우성오 주편, 위의 책, 697쪽. 조 성 편저, 위의 책, 160쪽, 233쪽, 357쪽.

해 일하는 여자이다. ‘宀’³⁴⁾과 ‘女’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춘추전》에 이르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첩이 된다”고 하였다. 첩은 예로써 데려오지 않는다. (有皐女子給事之得接於君者。從宀女。春秋傳云，女爲人妾。妾，不娉也³⁵⁾。)

【고찰】 ‘妾(처 첩)’의 갑골문 자형은 ‘여자가 머리 장식인 ∇를 하고 꿇어 앉아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妻’자 역시 여인의 머리 윗부분에 장식을 더한 모양으로, 애초에 두 자의 지위 구별은 없어서, ‘비하’의 의미가 없었다.³⁶⁾ ‘妾’은 복사에서 ‘배우자’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때로 妣名을 생략할 수 있었다. 先公先王之 배우자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에게도 사용하였다. ‘妾’은 비교적 광범하게 ‘배우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두 글자에 대한 분별은 후대에 생긴 것이다.³⁷⁾

즉, 商代의 ‘妾’과 ‘妻’는 신분이 매우 귀한 여인의 호칭이었으며, ‘妾’의 사용 범위가 훨씬 광범하였다. 주대에 이르러 ‘妾’의 신분이 ‘妻’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³⁸⁾, 춘추 시대 이후에는 ‘賤妾’의 신분으로 더욱 낮아졌다.³⁹⁾

《설문》에서는 후기의의를 본의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였다.

(6) 丞

해서	소전	갑골문	금문
丞			

《설문》 3편상 丞부: 돕는 것이다. 卩, 冂, 山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로, 산

34) (한)허 신 찬, 위의 책, 58쪽 : ‘宀’은 범을 어기는 것이다.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干’과 ‘二’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二’는 ‘上’의 고문자이다. ‘宀’이 들어간 모든 글자들은 ‘宀’을 부수로 한다. ‘宀(허물 건)’처럼 읽는다. (宀, 皐也。從干二。二古文上字。凡宀之屬皆從宀。讀若宀。)

35) 娉禮: 고대 혼례 “六禮”의 하나. 남자측이 중매인을 청하여 여자측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는 것이다.

36) 이효정 편, 위의 책, 765-766쪽.




37) 조 성 편저, 위의 책, 56쪽.

38) 《禮記·內則》, “예로써 맞이하는 경우는 처이고, 예로써 맞이하지 않는 경우는 첩이다.(聘則爲妻, 奔則爲妾).”

39) 양동숙 저, 《갑골문 字典을 겸한 甲骨文解讀》(서울: 月刊書藝文人叢, 2005), 915쪽.



이 높아 받쳐준다는 뜻이다. (翊也。從升從口從山。山高奉承之義。)

【고찰】 ‘丞(도울 승)’의 갑골문 자형은 ‘두 손으로 사람을 함정속에서 꺼내는 모양’으로, 본의는 ‘사람을 꺼내어 구하다’이다. ‘拯(건질 증)’의 초문이다.⁴⁰⁾ 본의에서 인신되어 ‘돕다’, ‘승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手’를 부수로 하는 형성문자 ‘拯’을 파생시키면서 고금자 관계를 이룬다.

《설문》의 소전 자형에서는 함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山’의 모양으로 변하였고, 갑골문의 이체자 이 금문 를 거치면서 ‘두 손으로 끄집어 내는 모양’ 대신에 ‘받치는 모양’으로 변하여 후기의인 ‘돕다’로 본의를 풀이하게 된 단서를 제공하였다. 또, ‘丞’의 갑골문 이체자 이 나중에 연변 과정을 거쳐 ‘承(받들 승)’과 고금자 관계를 이루는데, 이는 ‘丞(도울 승)’과는 고금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⁴¹⁾

허신은 후기자로 본자를 풀이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7) 異

해서	소전	갑골문
異		

《설문》 3편상 異부: 나누는 것이다. ‘두 손’을 나타내는 ‘升’과 ‘주다’는 의미의 ‘冎’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冎’는 ‘주다’는 것이다. ‘異’자가 들어간 자들은 모두 ‘異’를 부수로 한다. (分也。從升冎。冎, 予也。凡異之屬皆從異。)

【고찰】 ‘異(다를 이)’의 갑골문 자형은 ‘사람이 손을 들어 바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⁴²⁾ ‘從異戔聲’인 ‘戴(일 대)’의 초문이다⁴³⁾. 복사에서는 가차하여 ‘翼

40) 나진욱 찬, 위의 책, 509쪽.

41) 이효정 저, 위의 책, 2783-2784쪽.

자, ‘다른 날(異日)’을 나타내는 시간사로 사용되었다. 또, 동사로써 ‘돕다, 보좌하다’로도 사용되었는데44), 이는 ‘異’의 가차의인 ‘翼’에서 인신된 의미이다.

이효정은 《설문》에서 ‘分(나눌 분)’이라고 풀이한 근거를 ‘異’의 후기자인 ‘戴’에서 인신된 것으로 여겼다. 머리에 받들고 있는 것은 신체 외부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머리에 인 물건이 글자의 중심 형체인 신체와는 다른 것에서 ‘다르다, 구분되다’는 의미가 인신된 것이다.45)

갑골문 ‘異’의 본의는 ‘戴’의 초문으로 고금자 관계이고, 가차하여 ‘翼’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후에 고금자 관계를 이루게 된다.

오늘 날 ‘異(다를 이)’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본의인 ‘받들다’에서 인신된 것으로, 허신은 그 후기자를 본자로 잘못 풀이한 오류를 범하였다.

(8) 興

해 서	소 전	갑 골 문
興		

《설문》 3편상 興부: 일으키는 것이다. ‘함께 들다’는 의미의 ‘昇’와 ‘同’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同’은 힘을 합치는 것이다. (起也。從昇46)同。同。同

42) 우성오 주편, 위의 책, 263~285쪽.

43) (한)허 신 찬, 위의 책, 50쪽. : 戴, 《설문》 3편상 興부: 물건을 나누어 증가되는 것을 ‘戴’라고 한다. 구분하다는 의미를 갖는 ‘異’와 발음을 나타내는 ‘戔’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分物得增益曰戴。從異戔聲。) : 허신은 ‘異’부수에 당시 이미 존재했던 ‘戴’자를 귀속시키고, 그 의미로 본의를 풀이하였다. 고금자 관계의 두 자를 한 부수 속에 귀속시킨 것은 훌륭하지만, 본자에 대한 의미 분석이 틀린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오는 해석 오류를 범하였다.

44) 조 성 편자, 위의 책, 221쪽, 267쪽, 325쪽.

45) 이효정, 위의 책, 0803~0827쪽.

46) (한)허 신 찬, 위의 책, 50쪽. : 《설문》 3편상 興부: ‘昇’는 함께 드는 것이다. 두 손을 나타내는 ‘升’과 ‘升’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昇’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모두 ‘昇’를 부수로 한다. ‘어’처럼 읽는다. (共舉也。從升。凡昇之屬皆從昇。讀若余。)

(한)허 신 찬, 앞의 책, 60쪽. : 《설문》 3편상 興부: 興는 양손을 교차하는 것이다. 왼손과 오른손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興가 들어간 자들은 모두 興를 부수로 한다. (叉手也。)

力也。)

【고찰】 갑골문의 자형은 ‘두 사람이 서로 양손을 뻗어 물건을 같이 드는 것’으로 본의는 ‘들다’이다. 복사에서는 본의 외에 가차되어 ‘제명’, ‘방국명’으로 사용되었다.⁴⁷⁾

《설문》의 소전에는 자형의 변화가 이루어져 네 손 가운데의 물건이 ‘同(같은 동)’자로 정형화되었다. 이에 ‘힘을 합치다’, ‘일으키다’는 의미를 파생시킴으로써 후가의인 ‘일으키다’로 본의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오늘 날 ‘興’은 본의인 ‘들다’보다는 인신된 ‘일으키다’, ‘흥성하다’, ‘(마음에서 일어난) 흥미’등으로 사용된다.

3) 聲訓法에 의한 오류

(1) 競

해 서	소 전	갑 골 문
競	競	𠄎

《설문》 3편상 語部 : 서로 다투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회의 문자이다. ‘쫓아가다’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彊語也。從誥二人。一曰逐也。)

【고찰】 ‘競(다툼 경)’의 갑골문 자형은 ‘머리에 장식을 한 두 사람’이다. 복사에서는 가차되어 인명, 지명으로 사용되었다.⁴⁸⁾ 두 사람이 나란히 있으므로 ‘다투다, 경쟁하다’는 인신의가 생겼다.

從𠄎。凡𠄎之屬皆從𠄎。

47) 우성오 주편, 위의 책, 2851-2852쪽. 나진옥은 물건의 모양을 ‘배’로 고석하였고, 商承祚와 이효정은 ‘쟁반’으로 고석하였다.

48) 조 성 편저, 위의 책, 176, 252쪽.

소전에서는 갑골문에 비하여 자형 연변이 심하게 이루어져 ‘머리 장식’ 부분이 ‘言’자로 변화하였다. 허신은 이 소전체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자형 분석에 있어서 ‘말하다’는 의미가 들어간 자를 의부로 삼았으며, 본의 해석에 있어서도 ‘말하다’는 의부를 기본으로 한 후기의로 본의를 설명하였다. 허신은 그 본의를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 ‘競’과 첩운 관계에 있는 ‘彊(군셀 강)’⁴⁹⁾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성훈법에 의한 오류로 분류하였다.

(2) 共

해서	소전	고문	갑골문
共			

《설문》 3편상 共부 : 같은 것이다. 20을 나타내는 ‘廿’과 받들다는 의미의 ‘卂’으로 이루어진 회의 문자이다⁵⁰⁾. (同也。從廿卂。)

【고찰】 갑골문 자형은 ‘두 손으로 받드는 모양’의 회의자이다. 복사에서 인신되어 ‘공납으로 바치다’, ‘불러오다’의 동사로, 가차하여 복관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⁵¹⁾

‘共’은 《설문》에서 540부수중 ‘共’부로 독립되어 있다. 허신의 자형 분석에만 근거해서 보아도, 회의자를 이루는 의미의 중점 요소인 ‘卂(두 손으로 받들 공)’ 부수에 예속시키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서에 근거한 부수 정리 작업을 거치면서, ‘共’은 ‘卂’ 부수에 예속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 관계가 없는 ‘八’ 부수에 속하게 되었다.

‘卂’⁵²⁾과 ‘共’은 동일한 갑골문 자형에서 파생된 자들로, 고금자 관계이다. 손

49) (청)단옥재 주, 위의 책, 102쪽. : 競, 彊疊韻。彊語謂相爭。

50) (청)단옥재 주, 앞의 책, 104쪽. : 이십 명이 손으로 받들어 같게 하는 것이다。(二十人皆揀手是爲同也。)

51) 조 성 편저, 위의 책, 68쪽, 318쪽.

52) (한)허 신 찬, 위의 책, 59쪽. : 《설문》 3편상 卂부: 두 손으로 바치는 것이다. 오른손과 왼손으

위에 받들고있는 물건(口)이 첨가되면서 자형 변화를 거치게 되었지만, 복사에서는 혼용되었다.

오늘 날 ‘共’자는 본의 ‘받들다’에서 인신된 ‘함께 하다’, ‘같이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 과정에서 ‘卂’자는 ‘共’으로 흡수되었고, ‘받들다’의 의미는 ‘拱(두 손 맞잡을 공)’자를 만들어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하게 되었다. 즉, ‘卂’, ‘共’, ‘拱(두 손 맞잡을 공)’은 고급자 관계이다.

단옥재 주에 따르면, ‘共’은 渠用切 9부⁵³⁾에 속하고, ‘同’은 徒紅切 9부⁵⁴⁾에 속한다. 허신은 당시 유행했던 성훈법을 사용하여 ‘共’의 본의를 풀이하였지만, 시대의 한계에서 오는 본의 판단의 불분명과 자형 분석의 오류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4) 互訓法에 의한 오류

(1) 晨

해 서	소 진	갑 골 문
晨		

《설문》 3편상 晨부: 새벽으로, 어둡고 상쾌하다. 日과 ‘辰’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辰’은 ‘때’이고, 또한 소리를 나타낸다. 달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 달을 움켜 잡을 정도의 이른 새벽에 나가 일하는 것(夙)과 새벽에 나아가 일하는 것은 모두 같은 뜻이다. ‘晨’이 들어간 자들은 모두 ‘晨’을 부수로 한다. (早, 味爽也。從日辰。辰, 時也。辰, 亦聲。夙⁵⁵⁾夕爲夙, 日辰爲晨, 皆同意。凡晨之屬皆從晨。)

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鍊手也。從日辰。)

53) (청)단옥재 주, 앞의 책, 104쪽. : 共, 渠用切, 九部.

54) (청)단옥재 주, 앞의 책, 353쪽. : 同, 徒紅切, 九部.

55) 《설문》 3편하 夙부: 夙는 잡는 것이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夙을 가진 글자들은 모두 夙를 부수로 한다. ‘극’처럼 읽는다. (夙(夙), 持也。象手有所夙據也。凡夙之屬皆從夙。讀若夙。 (단주: 夙, 几劇切。)

【고찰】 갑골문의 자형은 ‘두 손으로 농기구로 사용하던 대합조개를 부리는 것’으로, 본의는 ‘밭 갈다’이다. 소전과 갑골문의 자형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며, 또 𠄎과 辰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로 자형을 분석한 것 역시 일치한다. 그러나 이미 본의를 잘못 분석한 ‘辰’⁵⁶⁾자 조례를 그대로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재차 오류를 범하였다. 즉, 《설문》에서는 ‘辰’의 가차의인 ‘때’를 ‘농부가 일하러 나가는 시간인 새벽’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辰’의 갑골문 자형에 근거한 본의는 ‘대합조개에 구멍을 뚫어 손가락을 끼어 사용하던 조개 낚’으로 벼이삭을 자르는 공구이다.⁵⁷⁾

따라서 허신은 당시의 통용의인 ‘부’자로 호훈해서 본의를 풀이한 오류를 범하였다. ‘부’는 《설문》 7편상 日부에, “새벽이다. 해가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회의문자이다.(晨也。從日在甲上。)”라고 호훈해주고 있다.⁵⁸⁾

오늘 날에는 ‘새벽’을 나타내는 상용 한자어로 ‘晨’보다는 ‘晨(새벽 신)’을 사용한다.⁵⁹⁾

3. 結 論

역대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설문해자》에 대한 수정 보완은 고대 중국어 연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한자 교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지만,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본 고에서는 《설문해자》 3편·상의 339개 小篆(重文 63개) 풀이 중에서 《갑골문자고림》에 있는 글자를 선별한 뒤, 자형 분석과 본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17개 자에 대하여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6) (한)허 신 찬, 위의 책, 311쪽. : 《설문》 14편하 辰부 : 辰은 떨치는 것이다. 삼월은 양기가 동하며, 우리가 진동하여, 백성들이 농사짓는 때이다.(振也。三月, 陽氣動, 雷電振, 民農時也。)

57) 양동숙 저, 앞의 책, 697쪽.

58) (한)허 신 찬, 앞의 책, 137쪽.

59) 주준성, 앞의 책, 801쪽. : 晨, 《설문통훈정성》 屯部 第十五 : ‘晨은 경전에서 모두 ‘晨’자로 쓰인다.(經典皆以晨爲之。)

1. 자형 연변으로 인한 오류에는 ‘舌, 千, 言, 童, 僕, 彘’ 등 여섯 자가 있다.

‘舌’자의 갑골문 자형은 입에서 혀가 나온 상형자인데, 소전에 근거하여 ‘干(범할 간)’과 ‘口’의 회의문자로 분석하였다. ‘千’자의 갑골문 자형은 발음을 나타내는 ‘人’자에 일천을 가리키는 가로선 하나를 그은 형성문자인데, 허신은 ‘十’과 ‘人’의 형성문자로 잘못 보았다. ‘言’자는 혀(舌)에 소리를 나타내는 상징부호 ‘一’을 그어 표현한 지사문자이다. 허신은 의미를 나타내는 ‘口’와 발음을 나타내는 ‘彘’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로 보았다. 오늘 날 ‘어린 아이’를 나타내는 ‘童’자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문신 새기는 공구인 ‘彘’이 첨가된 회의문자로 ‘문신이 된 노예나 죄인’을 가리켰다. 허신은 상형성이 완전히 사라진 소전으로 인해 ‘彘’과 ‘重’의 형성문자로 잘못 분석하였다. ‘종’을 가리키는 ‘僕’자는 원래 더러운 물건을 내다버리는 사람의 모습을 본 뜬 자였다. 소전의 와변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허신은 ‘人’과 번다한 모양을 나타내는 ‘彘’으로 이루어진 회의문 형성문자로 보았다. ‘彘’자는 본래 두 손으로 고기를 들고 있는 모양인데, 허신은 활을 잡고 있는 모양으로 잘못 분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형 연변으로 인한 오류들이다.

2. 후기자를 본자로 삼은 오류에는 ‘干, 十, 兂, 音, 妾, 丞, 異, 興’ 등 여덟 자가 있다.

‘干(방패 간)’은 나뭇가지에 돌맹이를 매단 모양으로 무기의 일종인데, 허신은 후기의인 ‘범하다’로 본의를 해석하였다. ‘十’은 숫자 ‘열’을 나타내는 지사자인데, 허신은 후기의인 ‘갓추어지다’로 해석하였다. ‘兂’은 ‘逆’의 초문으로 거꾸로 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를 후기의인 ‘거스르다’로 해석하였다. ‘音’은 ‘言’과 동원자로, 갑골문의 자형은 같다. 소전체에서 ‘囗(言)’과 ‘音(音)’으로 구별이 생겨, 허신은 후기의인 그냥 의미없는 소리와는 다른 ‘음약’으로 풀이하였다. ‘妾(처첩)’은 여자가 머리 장식을 하고 꿇어 앉아있는 모양으로 ‘배우자’를 나타내었는데, 허신은 후기의인 ‘시중드는 여자’로 풀이하였다. ‘丞(도울 승)’자는 ‘拯(건질 증)’의 초문으로, 두 손으로 함정속에서 사람을 꺼내는 모양이다. 본의는 ‘사람을 꺼내어 구하다’인데, 허신은 후기의인 ‘돕다’로 풀이하였다. ‘異(다를 이)’자는 ‘戴(받들 대)’의 초문으로, 사람이 두 손을 들어 바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허신은 후기의인 ‘구분하

다'로 본의를 풀이하였다. '興(일어날 흥)'자는 두 사람이 양손을 뻗어 물건을 같이 드는 모양으로 '들다'가 본의인데, 후기의인 '일으키다'로 잘못 풀이하였다.

3. 성훈법에 의한 오류에는 '競, 共' 등 두 자가 있다.

'競(다툼 경)'자는 머리 장식을 한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양으로, 여기에서 '경쟁하다'는 인신의가 생겨났다. 허신은 후기의인 '다투다'로 본의를 풀이하면서 첩운 관계에 있는 '疆(군셀 강)'자를 이용하였으므로, 성훈법에 의한 오류로 분류하였다. '共(함께 공)'자는 두 손으로 받드는 모양으로, '받들다'가 본의이다. 허신은 '함께 하다'는 인신의를 본의로 여기었는데, 그 풀이 과정에서 성훈법을 사용하여 '同'자로 해석하였다.

4. 호훈법에 의한 오류에는 '農'자가 있다.

'農(새벽 신)'자는 두 손으로 땅을 파고 파종하는데 사용되던 대합 조개를 부리는 모양으로 '밭 갈다'는 뜻이다. 허신은 가차하여 사용된 후기의인 '새벽'으로 본의를 풀이하면서 《설문해자》에서 '부(이를 조)'와 호훈하는 방법을 썼다. 역시, 본의 해석에 있어 오류이며, 오늘 날에는 '農(새벽 신)'자를 상용자로 사용한다.

2,000여년 간 역대 학자들의 공구서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설문해자》를 갑골문과 결합하여 《新說文解字》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字의 연원에서 변화 발전 과정, 한자에 대한 체계적 정립과 교육에 큰 도움이 될 뿐아니라, 중국어 어휘 연구에도 큰 기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 (清)阮 元 校刻, 《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6.
(清)桂 馥 撰, 《說文解字義證》, 濟南: 齊魯書社, 1994.
(漢)許 慎 撰,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北: 天工書局, 1992.
(漢)許 慎 撰, (清)朱駿聲 編著, 《說文通訓定聲》, 北京: 中華書局, 1984.
(漢)許 慎 撰, 《說文解字》(小徐本), 北京: 中華書局, 1996.
丁福保 編, 《說文解字詁林》, 臺灣: 商務印書館, 1970.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編,《漢語大字典》三卷本,四川辭書出版社,1995.
- 高樹藩 編,《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增訂本,臺北:正中書局,2005.
- 谷衍奎 編,《漢字源流字典》,北京:華夏出版社,2006.
- 羅振玉 撰,《殷虛書契考釋三種·增訂殷虛書契考釋》全二冊,北京:中華書局,2006.
- 馬如森著,《殷墟甲骨文引論》,東北師範大學出版社,1993.
- 方述鑫等 編,《甲骨金文字典》,成都:巴蜀書社,1993.
- 徐中舒 主編,《甲骨文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1995.
- 王延林 編,《常用古文字字典》,上海書畫出版社,1990.
- 容 庚 編,《金文編》,北京:中華書局,1983.
- 于省吾 著,《甲骨文字釋林》,北京:中華書局,1993.
- 于省吾 主編,《甲骨文字詁林》全四冊,北京:中華書局,1996.
- 李孝定 編,《甲骨文字集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五十,1970.
- 趙 誠 編著,《甲骨文簡明詞典》,北京:中華書局,1996.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漢語大詞典》,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1995.
- 梁東淑 著,《갑골문 字典을 겸한 甲骨文解讀》,月刊 書藝文人畫,2005.
- 裘錫圭著,李鴻鎮 譯,《중국문자학》,신아사,2001.
- 民衆書林 編輯局 編,《漢韓大字典》,서울:民衆書林,2002.
- 阿辻哲次 지음,沈慶昊 옮김,《漢字學〈說文解字〉의 세계》,이희,1996.
- 吉林大學古文字研究室 編,《于省吾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吉林大學出版社,1996.
- 朱德熙 著,《朱德熙古文字論集》,中華書局,1995.
- 陳煒湛 著,《甲骨文論集》,上海:古籍出版社,2003.
-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主編,《中國五千年長曆》,氣象出版社,2002.
- 唐 蘭 著,《古文字學導論》,齊魯書社,1981.
- 雷漢卿 著,《〈說文〉「示部」字與神靈祭祀考》,巴蜀書社,2000.
- 劉志誠 著,《漢字與華夏文化》,巴蜀書社,1995.
- 班吉慶 著,《漢字學綱要》,江蘇古籍出版社,2001.
- 石定果 著,《說文會意字研究》,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
- 孫鈞錫 著,《中國漢字學史》,學苑出版社,1991.
- 宋永培 著,《〈說文〉與上古漢語詞義研究》,巴蜀書社,2001.
- 余國慶 著,《說文學導論》,安徽教育出版社,1995.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3篇上의 字形 풀이 고찰(IV) 101

- 王 寧 · 謝棟元 · 劉 方 著, 《〈說文解字〉與中國古代文化》, 遼寧人民出版社, 2001.
- 陸宗達 著, 金 槿 譯, 《說文解字通論》, 啓明大學校出版部, 1986.
- 李孝定 著, 《漢字的起源與演變論叢》, 臺北: 聯經出版社, 1986.
- 藏克和 著, 《說文解字的文化說解》, 湖北人民出版社, 1996.
- 張其昀 著, 《〈說文學〉源流考略》, 貴州人民出版社, 1998.
- 馮 蒸 著, 《說文同義詞研究》,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5.
- 장혜영,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1篇의 오류 수정〉, 《中國言語研究》 제17집, 2003.12.
- 장혜영,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2篇上의 오류 수정〉, 《中國研究》 제32권, 2003.12.
- 장혜영,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2篇下의 字形 풀이 고찰(III)〉, 《중국문화연구》 제6집, 2005.06.

《中文提要》

《说文解字》是一部伟大的文字学著作, 在历史上的影响力很大。虽然甲骨文被发现以来, 受到的批评也不少, 可还是得到世人的高度重视。如果我们没有它, 很多古文字资料的研究就会遇到许多阻碍。本文的写作目的在于指出《说文解字》的局限性, 纠正其说解的一些错误, 以便于能够更好地利用它。

本文先把《说文解字》第三篇上当中的十七个小篆(包括63个重文)对照甲骨文字的字形和本义, 然后找出需要纠正的十七个字, 最后通过考察, 归纳为如下四个项目。

因字形演变发生的错误 : 舌 · 千 · 言 · 童 · 仆 · 彘

以後起字为本字的错误 : 干 · 十 · 兪 · 音 · 妾 · 丞 · 异 · 兴

利用声训法的错误 : 竟 · 共

利用互训法的错误 : 農

關鍵詞 : 《說文解字》, 甲骨文, 小篆, 古文字, 本義